

일. 불의의 문제

- ❖ 고고학이 밝혀낸 그 당시의 가나안 종교들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. 즉, 마법, 점술, 죽은 자와의 소통, 심령술,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등이었습니다! (신 18:9-12). 여기에 더해 성직자와 여사제 모두가 참여한 "신성한 매춘" 의식도 추가되었습니다. 이 의식들은 거룩함과 정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.
- ❖ 이런 종교 관습들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지만,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악습을 바로잡을 시간을 사백년 넘게 주셨습니다.
- ❖ 마침내 인간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온갖 악행을 조장하는 변태적인 의례들이 끝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한동안은 인류의 도덕적 타락을 막으셨습니다.

이. 정의의 문제

- ❖ 하나님 성품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사랑과 공(정)의는 그 기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(정)의롭고 공평합니다.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형벌을 미루시지만, 죄악을 영원히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.
- ❖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었고, 그 지역 주민들의 악이 형벌을 받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.
- ❖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의로운 정부를 세우려 하셨습니다. 새 정부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, 그들이 보고 자극을 받아 자신의 도덕과 윤리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,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(신 4:5-6).

삼.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전쟁

- ❖ 성경에는 전쟁이 특정 상황에서만 허락되었으며, 전쟁 방식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다고 나와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은:
 - 전문적인 군대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
 - 참여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고 때로는 전리품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
 - 전쟁은 꼭 필요한 상황, 즉 언약하신 땅을 정복하거나 방어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되었습니다
 -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, 즉 모세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했습니다
 - 전투하기 전에 모두가 영적인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
 - 전쟁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은 적군으로 취급되었습니다
 -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전투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

사. 자신들의 선택이 파멸로 이끔

- ❖ 가나안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고 파멸이 선포되었습니다. 그 안의 모든 생물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(신 20:16-18; 수 10:40). 하지만, 예외도 있었습니다:
 - 전멸당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라도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(예: 라합)
 -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형당했습니다 (예: 아간).
- ❖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똑 같이,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.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아니면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.
- ❖ 오늘도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. 예수님께서 오실 때,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될 것입니다.

오. 평화를 추구함

- ❖ 예수님은 "평화의 왕"이십니다(사 9:6). 그분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, 평화로 통치하실 것입니다(요 14:27; 사 60:17).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의 왕국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속에 살아가야 합니다.
- ❖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 그가 살던 도단을 포위했을 때, 엘리사는 하나님께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자신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전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. 눈먼 아람군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간 엘리사는 적대적인 두 나라가 평화를 회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(왕하 6:12-23).
- ❖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시였습니다. 갈등 속에서도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,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(롬 12:20-21).